

청소년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 정도와 관리 노력 : 학년에 따른 변화

Parental Knowledge and Monitoring of the Daily Activities
of Adolescents : Difference by Grade in School

나 유 미*
Rah, Yumee
임 연 진**
Lim, Yonjin

Abstract

Associations between parents' knowledge of their adolescent child's daily activities, 3 sources of parental knowledge, children's feelings of being controlled, and the child-reported parent-child relationship were explored among 161 seventh grade, 158 eighth, 145 tenth, and 142 eleventh grade boys. Children's spontaneous disclosure explained more parental knowledge of their daily activities than parental solicitation or parental control. For 10th grade childre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feelings of being controlled was moderated by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Tenth and eleventh grade children's disclosure were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parent-child relationship than with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feelings of being controlled.

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s), 부모의 관리(parental monitoring), 통제감(feeling of being controlled)

※ 접수 2002년 4월 30일, 채택 2002년 6월 1일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E-mail : yumeerah@hanmail.net

** 동해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전임강사

I. 서 론

본 연구는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부모의 관리노력이 자녀의 태도와 어떻게 맞물려 그 효과를 거두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관리 노력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탐색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이 자녀의 사회화 과정과 연관된다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가족이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력 이외에 잠재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다. Hartup(1979)이 제시했듯이, 부모는 가정밖에서 자녀가 언제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녀의 사회 생활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아동 중기가 지나면서 자녀가 점차 자율성과 독립성이 발달함에 따라 자녀는 가정 밖에서의 과외 활동에 참여하며 또래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점차 증가한다. 이 때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등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모의 이런 역할은 자녀가 아동 중기 이후 청소년 초기, 청소년 중기로 성장하는 동안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부모는 자녀가 또래들과 얼마나 잘 지내고 있으며 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과 친구관계, 활동 장소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이런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라도 자녀와 대화를 하거나 활동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Collins,

Harris, & Susman, 1995).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부모가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부모의 관리 활동 중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부모의 점검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일상활동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아동기에는 자녀의 학업성취수준이 낮았고 학업에 대한 자아지각도 부정적이었으며,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약물 사용을 더 일찍 시작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남아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ilcoat & Anthony, 1996; 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 Patterson, Bank, & Stoolmiller, 1990;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특히 미국의 연구를 보면,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에 대해 통제를 별로 하지 않으며 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일탈행동과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청소년의 생활에 관한 부모의 감독 혹은 관리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로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그것이 자녀의 일탈행동과 관련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이나 관리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들이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알게 되는 경로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Kerr & Stattin, 2000). 자녀가 스스로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

활을 말하기 때문에 알기도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관계나 일상생활에 대해 의도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거나 갔다 와서 보고를 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미리 통제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일탈행동을 적게 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확인하기보다는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는 과정이 자녀의 적응문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Kerr와 Stattin(2000)의 선행연구는 부모의 관리 노력을 재개념화하는데 계기가 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더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일탈행동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부모의 의도적인 질문이나 통제보다는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보고하는 것 때문임을 보고했다. 게다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발달적으로 보면,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생활을 관리하기가 쉽지만, 청소년기가 될수록 부모들은 자녀들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 집 밖에서의 생활 시간이 많아진다는 점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더 독립적으로 지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생활에 대해 부모가 캐묻거나 통제하는 것은 통제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스스로 보고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인 점검 방법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급속한 성장과정을 거치고 있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은 가족 관계에서도 변화를 겪게 된다. 청소년의 독립성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도 증가하게 되고 부모들은 이런 청소년기 자녀의 욕구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Steinberg et al., 1994). 청소년기의 생물학적·신체적 변화와 학업상의 요구, 가족 관계에서의 변화 등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때 부모-자녀의 관계는 청소년기 자녀의 이런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도 있으며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점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또래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에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때 부모들의 관리 노력에 맞물려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부모와의 대화 정도를 좌우할 수도 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에 간섭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대화를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호적이지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고 본다. Steinberg와 그의 동료들(1994)은 부모가 권위적이고 민주적인 양육 방식을 보이는 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양육 방식을 보이는 가족의 자녀들과는 달리 일탈된 또래들과 접촉하더라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부모의 상호작용 스타일이 청소년기 자녀의 일탈행동을 중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연구에 기초할

때,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부모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은 결국 청소년기 자녀의 일탈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완충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관리 활동을 포함한 연구들이 있으며(김두섭과 민수홍, 1996; 남현미와 옥선화, 2001; 박성수, 1994), 부모의 관리 정도와 자녀의 문제 행동 및 자녀의 내면적 적응문제의 관련성이 연구된 바 있다(박진경과 도현심, 200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특정 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모의 관리 정도와 자녀의 행동간의 관계를 보았을 뿐, 자녀가 성장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들의 관리 활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부모들의 관리 노력에 대해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갖는지에 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부모자녀의

관계는 가족구성원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변화한다. 특히 자녀의 변화는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도 스스로 부모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 노력과 자녀의 태도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자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 활동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들이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도와 자녀들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서 변화가 있는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탐색해본다.
2. 부모의 관리 노력과 자녀의 태도간의 관계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 검증해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있는 남자 중학교 1개교(각 학년당 4개 반)와 남자 고등학교 1개교(각 학년당 4개 반)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생 161명, 2학년생 158명, 고등학교 1학년생 145명, 2학년생 142명으로서 총 606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어머니 384명과 아버지 96명, 기타 친척, 조부모, 형제 등의 보호자 16명이 부모 응답을 위해 포함되어 총 496명이 부모 응답자로 참여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평준화 상태에 있는 학교였으며, 같은 재단의 학교로서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어서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조건이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부모 응답자중 어머니의 연령은 35세~55세의 분포로 평균과 중앙치 연령이 42세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38세~57세의 분포로 평균과 중앙치 연령이 44세였다. 기타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서의 응답자는 20세~68세로서 중앙치 연령은 37세였다. 부모 응답자의 학력을 보면,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60%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대졸·대학원졸을 합쳐서 16%, 중졸이 21%, 국졸이 4%였다. 아버지 응답자의 경우, 고졸이 47%, 전문대졸 이상이 35%, 중졸이 16%, 국졸이 2%였다. 그외 응답자의 경우에도 고졸, 중졸, 대졸 순이었다. 어머니 응답자의 48%가 전업주부였으며, 아버지 응답자의 65%가 자영업 또는 사무직에 종사하

고 있었다. 이런 인구학적 특성의 분포는 기존의 여러 청소년 연구에서 표집된 연구대상의 분포와 유사한 것이다.

2. 연구 도구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모두 Kerr와 Stattin(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변안·수정한 것이었다. 다음의 각 척도에 해당하는 항목을 질문지 전체에 섞어서 분포시켰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또는 자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한 척도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평균내어 그 척도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척도가 측정하는 특성을 더 많이 드러냄을 의미한다.

1)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자녀가 자유시간 동안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용돈 관리나 학교 공부 등에 관한 부모의 파악 정도를 알아보는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자녀용 질문지), 부모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부모용 질문지)를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부모용 질문지의 신뢰도는 $\alpha=.84$ 였고 자녀용 질문지의 신뢰도는 $\alpha=.71$ 이었다.

2)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게 되는 세 가지 방법

(1) 자녀 스스로 말한다. (자발적 보고)

학교생활이나 자유시간의 활동 등에 관해 집에 가서 스스로 말하는 편인지, 숨기는 편인지를 물어보는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용 질문지와 자녀용 질문지의 내용은 같다. 부모용 질문지의 신뢰도는 $\alpha=.67$ 이었고 자녀용 질문지의 신뢰도는 $\alpha=.68$ 이었다.

(2) 부모가 물어본다.

자녀가 자유시간 활동을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혹은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거나 자녀의 친구들을 통해 알아내려는 것으로서, 5개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용 질문지와 자녀용 질문지의 신뢰도는 각각 $\alpha=.70$ 과 $\alpha=.68$ 이었다.

(3) 부모의 통제

자유시간의 활동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에 관해 부모의 허락을 받거나 갔다와서 부모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등의 규칙을 설정해 놓은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용 질문지와 자녀용 질문지의 신뢰도는 각각 $\alpha=.81$ 과 $\alpha=.67$ 이었다.

3)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얼마나 통제받는다 고 느끼는지를 알아보는 척도로서, '내 부모님은 내 자유시간에 하는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등의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용 질문지만 있고, 그 신뢰도는 $\alpha=.75$ 였다.

4) 부모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각각에 대해 자녀가 느끼는 것을 물어보는 7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머니(아버지)와 말다툼을 한다', '나와 어머니(아버지)는 서로를 잘 이해한다',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격려하고 이끌어주신다' 등의 문항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도는 $\alpha=.83$ 이며, 아버지와의 관계는 $\alpha=.84$ 였다.

3. 연구 절차

자녀용 질문지는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학급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회수하여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부모용 질문지는 학생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되어 집에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지를 봉하여 일주일 이내에 학생을 통해 회송하도록 하여 회수율은 82%였다. 조사 시기는 해당 학년도가 마감되는 겨울방학 직후였다.

4. 통계 분석

변수들의 값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문제는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고,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rson correlation 분석이 수행되었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독립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B값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모든 연구 문제에 대해 학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 정도와 파악 방법에서의 학년간 차이

부모를 통해 얻은 자료와 자녀를 통해 얻은 자료간의 상관정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r=.28\sim.38$, 모두 $p<.01$) <표 1>에서 보듯이, 부모 보고에 의한 결과와 자녀 보고에 의한 결과간에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부모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는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줄어들었다.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 나머지 다른 학년들에 비해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특히 더 잘 파악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덜 말해주며, 부모도 자녀에게 덜 물어보았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중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더 많은 통제를 받고 있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제의 양이 줄어들었다. 한편,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통제의 양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 있어서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F=.84$, $df=3$, 601 , $p=.47$).

'알고 있는 정도'와 '알게 되는 세 가지 방법'에 있어서 학년에 따라 개인차의 정도가 일관된 추세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변이계수를 통해 비교해본 결과, 부모가 통제하는 정도에 있어서만 뚜렷한 차이를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년내의 편차가 커졌다(중1, $CV=0.19$; 중2, $CV=0.24$; 고1, $CV=0.27$; 고2, $CV=0.28$)¹⁾. 통제의 양과 관련해 볼 때, 중학교 1학년때는 대부

〈표 1〉 부모가 '알고 있는 정도'와 '알게 되는 방법'에서의 학년에 따른 차이 : 변량분석

	알고 있는 정도		자녀 스스로 말한다		부모가 물어본다		부모가 통제한다	
	M	SD	M	SD	M	SD	M	SD
중1(n=161)	3.53	.65	3.56	.73	3.18	.82	3.81	.75
(n=122)	4.13	.55	3.88	.64	3.71	.76	4.23	.74
중2(n=158)	3.48	.60	3.47	.64	3.08	.78	3.59	.85
(n=137)	3.87	.77	3.80	.66	3.49	.80	4.03	.85
고1(n=145)	3.31	.64	3.33	.67	3.15	.81	3.49	.94
(n=139)	3.72	.68	3.62	.67	3.44	.84	3.76	.88
고2(n=142)	3.29	.57	3.31	.68	2.91	.77	3.21	.91
(n= 98)	3.77	.66	3.66	.71	3.31	.75	3.66	.96
F	6.06***		4.70**		3.31*		12.39***	
	8.95***		4.23**		4.99**		10.61***	
Scheffé	중1>고1,고2 중1>중2,고1,고2		중1>고1,고2 중1>고1		중1>고2 중1>고2		중1>고1,고2; 중2>고2 중1>고1,고2; 중2>고2	

참조. *p<.05, **p<.01, ***p<.001, 자녀의 보고와 부모의 보고(굵은 글씨체)가 모두 제시됨.

분의 부모들이 비슷하게 통제를 많이 하는 편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제의 정도는 가정마다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게 되는 세 가지 경로의 비교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생활을 알고 있는 정도는 자녀 스스로의 보고에 의한 것인지, 부모가 물어본 결과인지, 통제를 한 결과인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에 있어서 학년마다 다른 양상을 띠는지 살펴보았다.²⁾

<표 2>를 볼 때(학년별 β계수 참조), 중학

교 1학년생들은 부모가 통제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가 말하거나 부모가 물어봄으로써 알게 되었고, 중학교 2학년생의 경우도 대부분 자녀 스스로 말함으로써 알게 되고 어느 정도는 물어보거나 통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고등학생들은 주로 자녀 스스로 말하거나 부모의 통제 노력을 통해서 부모가 알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점점 노력(질문으로 유도)으로 알게 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모든 학년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생활을 알게 되는 경로는 자녀 스스로의 보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B계수를 기초로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알게 되는 경로별로 학년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녀 스스로의 보고가 중요한 경로가 되는 것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서였다. 부모가 물어봐서 알게 되는 경우는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중2였으며 다른 학년에서는 거의 작용하지 않았다. 부모의 통제는 중학생에서보다는 고등학생에서 더 크게 작용하였다.

- 1) 여기서는 자녀 보고에 의한 변이계수를 제시하였고, 부모 보고에 의한 결과도 같은 추세를 보여 생각하였다.
- 2) 부모 보고와 자녀 보고의 경향이 유사하였고, 부모 보고보다는 자녀 보고가 자녀의 적응 관련 변인을 더 잘 예측해주는 결과를 보이는 선행연구들(박진경 & 도현심, 2001; Kerr & Stattin, 2000)에 기초하여, 여기서는 이후의 모든 통계분석에 자녀의 보고만을 사용하였다.

〈표 2〉 '부모가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한 '알게 되는 세 가지 방법'의 설명력 : 학년별 표준회귀분석

	중1(n=161)		중2(n=158)		고1(n=145)		고2(n=142)	
	B	β	B	β	B	β	B	β
자녀 스스로 말한다	.31	.35***	.38	.41***	.45	.47***	.41	.49***
부모가 물어본다	.29	.36***	.13	.17*	.02	.03	.06	.08
부모가 통제한다	.11	.13	.13	.18*	.24	.35***	.19	.29***
<i>AdjR²</i>	.42***		.33***		.45***		.40***	

*p<.05, ***p<.001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생활을 파악하는 것은 자녀 스스로의 보고를 통해 가장 잘 알게 된다는 결과와 그 밖의 부모의 관리 노력들 간에 보이는 상관 관계 결과(〈표 4〉 참조)를 기초로 할 때, 자녀 스스로의 보고는 부분적으로 부모가 물어보거나 통제에 의한 반응일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의 파악 정도와 자녀의 보고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물어보는 것'과 '통제하는 것'이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이후 단계에서 첨가되는 다른 독립변인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Frome & Eccles, 1998;

Kerr & Stattin, 2000, 참조) 즉, 한 독립변인이 다른 독립변인에 의해 이전 설명력이 유의하게 감소된다면 이후에 투입된 독립변인은 앞의 독립변인의 중요 일부분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독립변인들이 차례로 투입됨에 따라 95% 신뢰구간에서 독립변인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변화하는 사례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파악 정도와 자녀의 보고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질문이 통제가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변인의 투입순서는 가장 먼저, '자녀 스스로의 보고'를 넣었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가 물어보는 것이 통제보다는 자녀의 보고로 이어지기 쉬운 것으로 판단되기

〈표 3〉 '부모가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한 '알게 되는 세 가지 방법'의 설명력에서의 변화 : 위계적 회귀분석

	중1(n=161)		중2(n=158)		고1(n=145)		고2(n=142)	
	B	CI ^a	B	CI	B	CI	B	CI
STEP1								
자녀 스스로 말한다	.47	.36~.59	.48	.36~.61	.56	.43~.68	.45	.34~.57
STEP2								
자녀 스스로 말한다	(.34)	.22~.45	.41	.29~.54	.47	.34~.60	.44	.33~.55
부모가 물어본다	.31	.20~.41	.18	.07~.28	.20	.09~.31	.18	.08~.28
STEP3								
자녀 스스로 말한다	.31	.19~.43	.38	.25~.51	.45	.33~.57	.41	.30~.52
부모가 물어본다	.29	.18~.39	.13	.02~.24	(.02)	-.10~.16	(.06)	-.05~.18
부모가 통제한다	.11		.13		.24		.19	

a. B값의 95% 신뢰구간. 굵은 글씨체는 p<.01. ()로 표시된 B값은 함께 투입된 독립변인에 의해 유의하게 줄어든 경우를 의미함.

때문에 '부모의 질문'을 넣었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통제'를 넣었다.

<표 3>을 보면,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 자녀 스스로 말하여 부모가 알게되는 것 중의 많은 부분은 부모가 물어봐서 알게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중2, 고1, 고2년생의 경우 '자발적 보고'가 다른 변인의 투입에 의해 유의하게 변화된 사례가 없으므로, 자녀 스스로 말하여 부모가 알게된 것에 부모가 물어보거나 통제가 그다지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파악 정도에 대한 '부모 질문'의 설명력이 이전 단계에서는 유의하던 것이 '부모의 통제'에 의해 유의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된 점을 볼 때, 부모가 물어보는 것의 많은 부분은 부모 통제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저학년들은 부모의 질문이나 통제노력에 대해 자녀 스스로가 보고하는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고학년이 될수록 자녀 스스로 말하는 것이 부모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모가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부모가 설정한 통제노력에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자녀 스스로가 말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통제 노력에 의해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부모에게 노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녀의 자발적 보고와 관련된 변인들 : 부모의 관리 노력,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 부모-자녀 관계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 정도는 자녀 스스로의 보고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의 보고는 또한 부모의 관리 노력의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관리 노력으로 인해 자녀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반응으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통제받는 느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 자녀 스스로의 보고간의 관계를 중재할 수도 있다. 또한 자녀가 느끼는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통제에 대해 자녀가 '통제받는 느낌'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성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우선, 자녀의 보고, 부모의 관리 노력, 자녀의 통제받는 느낌간의 관계를 상관분석 하였고 (<표 4> 참조), 부모-자녀 관계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표 5> 참조).

- 1) 자녀의 자발적 보고, 부모의 관리 노력, 자녀의 통제받는 느낌간의 관계
이들 변인간의 상관은 학년에 따라 다소 다

<표 4> 자녀 스스로 말하는 것, 부모가 물어보는 정도, 부모의 통제, 자녀의 통제받는 느낌 간의 상관관계

	자녀스스로말함× 부모가물어봄	자녀스스로말함× 부모가 통제함	부모가물어봄× 부모가통제함	자녀스스로말함× 통제받는느낌	부모가물어봄× 통제받는느낌	부모가통제함× 통제받는느낌
중1	.40**	.38**	.34**	-.15	.03	-.02
중2	.31**	.33**	.38**	-.19*	.11	.05
고1	.36**	.28**	.65**	-.06	.24**	.36**
고2	.07	.16	.56**	-.26**	.37**	.47**

*p<.05, **p<.01

〈표 5〉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학년간 차이 : 변량분석

	중1(n=161)		중2(n=158)		고1(n=145)		고2(n=142)		F	Scheffé
	M	SD	M	SD	M	SD	M	SD		
어머니와의 관계	3.66	.72	3.59	.74	3.42	.77	3.49	.77	3.05*	중1>고1
아버지와의 관계	3.91	.85	3.88	.79	3.37	.85	3.53	.86	14.82***	중1, 중2>고1, 고2

*p<.05, ***2 p<.001

른 패턴을 보였다. 부모가 물어보는 정도나 부모 통제의 양이 자녀가 느끼는 통제 받는 느낌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중학생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고등학생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생에서 두드러졌다. 즉,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부모가 많이 물어보거나 통제를 많이 하고 있을수록 통제 받는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다. 반면 중학생들은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통제 받는다는 느낌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 이들은 부모가 통제를 하거나 부모가 물어보는 것에 있어 통제 받는다는 거부적인 느낌이 없이 자발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통제의 양과 자녀의 보고간에도 정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제받는 느낌이 자녀 스스로의 보고와 상관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중학교 2학년생과 고등학교 2학년생의 경우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생의 경우에는 통제받는다는 느낌이 클수록 스스로의 보고는 적은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생들은 부모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 통제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며, 부모가 물어보더라도 그것의 상당부분은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표 3> 참조) 부모가 통제하더라도 통제 받는 느낌과 스스로의 보고간에는 유의한 관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부모의 통제가 많을수록 자녀 스스로의 보고도 많지만, 부모의 통제에 대해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통제에 대해 통제받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 보고하는 양을 줄이는 것 같다.

2) 부모-자녀 관계

먼저, 자녀가 느끼는 부모와의 관계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각각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고, 특히,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더 좋은 관계라고 보고했다.

각 학년별로,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통제·통제받는 느낌·자발적 보고 간의 관계를 상관 분석³⁾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3) 부모가 '물어 보는 것'은 부모의 '통제'와 상관이 높고(<표 4> 참조) 통제받는 느낌과의 관련을 보기 위해서는 '통제'변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므로, 이 분석에서는 '물어보는 것'을 제외했다.

<표 6>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통제·통제받는 느낌·자발적 보고 간의 상관분석

	모와의관계× 자발적보고	모와의관계× 부모의통제	모와의관계× 통제받는느낌	부와의관계× 자발적보고	부와의관계× 부모의통제	부와의관계× 통제받는느낌	부와의관계× 모와의관계
중1	.40**	.29**	-.38**	.22**	.37**	-.26**	.57**
중2	.28**	.05	-.46**	.17*	.19*	-.19*	.33*
고1	.39**	.05	-.44**	.27**	.18*	-.37**	.48**
고2	.47**	-.04	-.40**	.34**	.02	-.23**	.49**

*p<.05, **p<.01

<표 6>을 보면, 모든 학년에서 자녀들은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유사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아버지와의 관계와 자녀의 자발적 보고·통제받는 느낌간에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들은 자신의 생활을 부모에게 스스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통제받는 느낌을 덜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뚜렷하였다. 부모의 통제 정도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중학교 1학년생의 경우에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아버지와의 관계와 부모의 통제간에는 고2년생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중학교 1학년인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더 많이 통제하고 있었고,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와는 무관하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통제의 양이 더 많았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와 통제간에는 무관하였다.

결과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자녀의 보고에 있어서 학년에 따른 차이 및 부모-자녀 관계와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자녀의 자발적 보고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통제와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중재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의 통제에 대해 자녀가 통제받는 느낌을 많이 가질 것이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부모의 통제를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통제받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를 중재변인으로 하여 부모의 통제를 독립변인으로,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을 검증하였다(<표 7>참조). 변인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의 첫 단계에 부모의 통제와 부모와의 관계를 넣었고, 두 번째 단계에 부모의 통제와 부모와의

<표 7> 부모의 통제와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 간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자녀 관계의 중재효과 : 고등학교 1학년

	β^a	ΔR^2
step1. 부모의 통제	.32***	
어머니와의 관계	-.50***	.33***
step2. 부모의통제×		
어머니와의 관계	-.20**	.04**

a. 최종 model에서의 β 값. ** p<.01, *** p<.001

3) 부모의 통제와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 간의 관계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중재효과

자녀 스스로의 보고와 관련된 부모의 관리 노력과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 등의 상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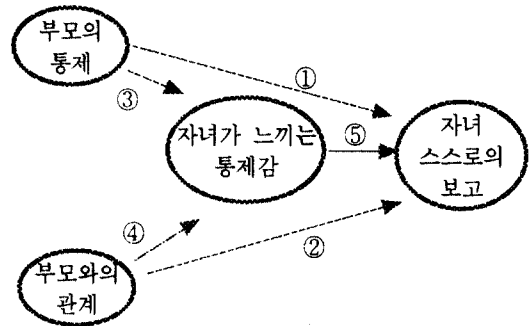
관계의 상호작용 항목을 넣었다. 그 결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만 주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전체변량을 4%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한 중재효과이며, 아버지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중재효과가 없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중재효과가 나타난, 고등학교 1학년생에 한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 따라 '부모의 통제'와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간의 상관관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머니와의 관계 수준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집단(상위 33%)에서는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통제감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며($r=.18, n.s.$) 중간(33%) 집단과 하위(33%) 집단에서는 각각 $r=.32$ ($p<.01$)와 $r=.56$ ($p<.001$)이었다. 즉, 부모관계가 좋은 집단은 부모의 통제가 많더라도 자녀들이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부모의 통제에 대해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녀 스스로의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 : 부모의 통제와 자녀의 통제받는 느낌, 부모와의 관계

앞의 분석을 기초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녀가 부모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은 부모의 통제 정도, 부모로부터 받는 통제 느낌,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만 그 양상은 학년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인과모형(<그림 1> 참조)을 적용해 각 학년별로 검증해 보았다. 즉, 부모의 통제와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에 영향을 주며, 이것이 자기 스스로의 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과 무관하게 부모의 통제와 부모-자녀 관계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보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검증하였다.



<그림 1> 부모의 통제, 부모와의 관계,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이 자녀 스스로의 보고를 예측하는 경로

학년별로 위의 인과 모형에 대해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고등학교 2학년에서만 직접·간접 효과가 나타났고, 다른 학년에는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은 자녀의 보고를 예측해주지 못했고 부모의 통제와 부모와의 관계만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보고를 예측하였다(<표 8> 참조). 즉 고등학교 2학년들의 경우에 부모의 통제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부모로부터 통제받는다는 느낌이 강하며, 이러한 통제감이 클수록 자녀 스스로의 보고는 줄어든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통제가 많으면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들은 스스로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어머니와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더 잘 예측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자녀 관계의 효과는 어머니-자녀 관계 효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몇 가지 경로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8〉 〈그림 1〉에 제시된 경로에 대한 경로계수

	① ^a	②	③	④	⑤
중1	.28***(.35***)	.31***(n.s.)	n.s.(n.s.)	-.40***(-.29***)	n.s.(n.s.)
중2	.33***(.33***)	.20* (n.s.)	n.s.(n.s.)	-.47***(-.21*)	n.s.(-.20**)
고1	.26** (.28**)	.39***(.19*)	.37***(.43***)	-.46***(-.45***)	n.s.(n.s.)
고2	.29** (.32***)	.39***(.26***)	.46***(.47***)	-.38***(-.24***)	-.24**(-.35***)

a. <그림 1>에 제시된 경로번호 참조. 어머니와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별 모델에 넣어 분석하였으므로 두 경우의 경로계수를 모두 제시함. ()안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포함된 모델의 경로계수.
*p<.05, **p<.01, ***p<.001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에 아버지와의 관계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 스스로의 보고는 많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자녀의 보고를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예측력이 없으며 이 때 부모의 통제가 많으면서도 자녀가 느끼는 통제감이 적을수록 자녀 스스로의 보고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기 스스로의 보고는 부모의 통제 정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더 잘 예측되었다. 반면에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 어머니와의 관계는 부모의 통제정도와 예측력에 있어 유사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지만 부모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측력을 보였다.

요약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 스스로의 보고와 관련성을 갖는데 있어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며, 중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자발적 보고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IV. 논 의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리노력에 관심을 둔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해 다루었다. 이런 연구들에 대해 최근에 Kerr와 Stattin(2000)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이들의 관점과 일치하여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정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떤

관리 노력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것이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해 탐색적 수준에서 시도되었다.

부모들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더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더 좋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정해 놓은 통제 규율에 더 잘 순응함으로써 자발적으로도 부모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부모들도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에는 더 많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통제하는 규칙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등의 통제를 줄였으며,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것도 중학생 부모들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것은 독립을 원하는 자녀의 태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일 수 있다.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알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서 알아내려고 시도하거나 규율을 정해놓고 따르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결과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의 자발적인 보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이것은 '자발적 보고'에 의해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는 것이 부모 쪽에서의 관리 노력보다 자녀의 또래 관계와 일상 생활을 건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Stattin & Kerr, 2000)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이 되면서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이것 저것 파헤치려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규율을 세워 지키게 함으로써 자녀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흥미있는 현상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만 부모의 통제와 부모로부터 통제받는다느 느낌간의 관계를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재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더라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자녀들은 그것을 통제받는 느낌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반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통제에 대해 통제받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2학년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할수록 통

제받는다느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통제감 그 이상의 것이었다. 이 현상에 있어서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통제 정도와 그들이 느끼는 통제감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 발달적 차이를 보였다. 아마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고 부모의 규칙보다는 또래의 규칙이나 자신의 내면의 규칙을 따르려는 성향이 발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제시하는 규칙에 순응하기보다는 점차 부모의 규칙이 절대적이지 아니며 부모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연령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어도 청소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며 효과적인 방법이 자녀 스스로의 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때, 자녀 스스로 보고하게 되는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통제하는 것이 자녀들의 자발적 보고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발적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부모의 통제에 대해 통제받는다느 느낌을 갖게 되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통제를 많이 하고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이들은 부모에 대해 통제받는다느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자발적 보고를 줄이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관관계를 기초로 한 인과 모형의 분석이므로 결론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류적 (transactional) 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한다면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얻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통제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는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eligman, 1991; Kerr & Stattin, 2000). 자녀로 하여금 통제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녀의 자발적 보고에 대해 오히려 부모자녀와의 관계의 영향력이 부모의 통제 정도나 통제받는 느낌의 영향력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무엇보다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 좋은 관계로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관리 노력이 자녀의 건전한 생활에 유용하다는 연구들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정도가 실제로 그들의 이탈행동을 예방하고, 자녀들에게는 통제받는다라는 느낌에 의한 내면적 적응상의 부작용없이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횡단 설계에 의해 부모의 관리 노력과 자녀의 태도간의 관련성에서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추정하여 보았다. cohort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서의 결과를 결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연구에서 주로 한 두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경향에 대해 그 제한성을 지적하고자, 본 연구는 인생의 짧은 시기동안 신비로울 만큼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기를 구별하여 학년별로 다른 양상을 띠는 점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연구의 결과들이 각기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여학생들을 포함하여 학년에 따른 변화 추세를 탐색하는 종단 연구나 또 다른 반복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두섭·민수홍 (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현미·옥선화 (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박성수 (1994).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진경·도현심 (2001). 어머니의 감독(monitoring)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Chilcoat, H. D., & Anthony, J. C. (1996). Impact of parental monitoring on initiation of drug use through late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91-100.
- Collins, W. A., Harris, M. L., & Susman, A. (1995). Parenting during middle childhood.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Vol. 1)*.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Crouter, A. C., MacDermid, S. M., McHale, S. M., & Perry-Jenkins, M. (1990). Parental monitoring

-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 Frome, P. M., & Eccles, J. S. (1998). Parents' influence on children's achievement-related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35-452.
- Hartup, W. W. (1979). The social worlds of childhood. *American Psychologist*, 34, 944-950.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 Patterson, G. R., Bank, L., & Stoolmiller, M. (1990). The preadolescent's contributions to disrupted family process. In R. Montemaye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 A transitional period* (pp. 107-133). Newbury Park : Sage.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 Knopf.
-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